

천 산

김정곤 감정평가사

천산의 머리는 세월이 발효된 흔적이다
억겁의 시간동안
서서히 탈색된

감히 하늘에 다가간 죄라고 하던가
신이 내린 순백의 형벌

그곳을 오르다 하얗게 발효된
이를 알고 있었다

천산을 오르다
천산을 닮아버린

그러나

길고 긴 모진 형벌을 감내한 그곳은
천산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고

천산을 닮은 이는
하얗게 탈색된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하늘이시여 산이시여
부디 하얀 배에 태워
돌려보내지 말아 주소서

아직은 검게 그을린
사막의 갈증을
하얗게 지워 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차가운 진공은
살아갈 이유를 뺏속 깊이 문신하고
산을 내려갈 용기를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대부분을 차갑게 태우고
산 아래 옥석점 선반 위에 놓여진
단단한 화씨의 옥이 되었음을,
그가 바로 천산이었음을
천산은 모든 기억을 눈과 바람과 얼음으로 빚어내고 있었다

※ 이 글을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박용수 감정평가사님께 바칩니다.

[이 글은 2014년 「감정평가」 봄호(113호) - 여행스케치 :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박용수 감정평가사를 읽고 바치는 시입니다.)